

< 여성학 수업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과정과 상황 >

- ▷ 5월 8일 : 총여와 모니터링 의견서를 가지고 여학생처 방문 2회
- ▷ 5월 11일 : yscec 사이버 수업 접수 마감
사회학과장과의 면담 시도 & 실패
- ▷ 5월 14일 : 여성연구소의 홈페이지 관리 관련 미팅

◎ 여학생처와의 방문(면담)

5월 8일 2회 여학생처를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찾아갔을 때는

☆ 여성학 수업 교양 개설위원회는 없다. 그냥 전체 교양개설위원회에 여학생처, 사회학과, 교육학과 등에서 개별적으로 교양개설위원회에 제출을 한다. 교양개설위원회 이전에 여성학 수업을 개설하는 분과별로 전혀 소통의 자리가 없다. 그리고 교양개설위원회 자리에는 학생들은 전혀 참여할 수 없다.

☆ 선생님들의 평가 관련해서 백진아 선생님의 경우 수강하는 학생들의 '수업평가'가 매우 좋다. 반면 총여학생회와 모니터링 의견에서는 백진아 선생님을 그다지 좋지 않게 평가하는데, 이럴 경우 더 많은 학우들의 의견인, 그 수업들 들은 학우들의 의견을 당연히 반영해야 한다. 모든 교양수업의 평가에서 학생들의 수업 평가서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백진아 선생님과 같은 경우 좀 더 구체적 이야기를 문서로 써와라. 그러면 반영할 수 있다.

⇒ 백진아 선생님이 멜이나 전화 등을 통한 학생들과의 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여성학 (개론) 수업이긴 하지만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시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여성학 개론 수업인데 여성노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다. 등등의 의사를 이야기하고, 더불어 여성학 수업을 1/2로 나누어 내용을 담는 것은 어떤지, 혹은 여성노동관련한 여성학 수업을 개설하는 것은 어떨지에 대해 의견을 보였지만,, 절대 안된다. 안 그래도 위에서(교무과) 수업을 줄이라고 하는데, 더 개설할 수는 절대 없다고 이야기했다. 다른 곳도 아니고 여학생처에서.

또한 수업관련해서 구체적 내용으로 의견서를 써간다고 정말 얼마나 반영할지는,,

두 번째 찾아갔을 때는

☆ 여성학 교양강좌개설위원회가 있다.

김현미 선생님, 여학생처장(윤정숙), 여성연구소장(이숙현), 0 0 0, 강사분들이 들어오신다. 하지만 이전에 김현미 선생님, 여학생처장, 여성연구소장, 000 이 모이는 자리가 선임위원회 이전에 개최된다. 하지만 위원회자리는 방학 때 있어왔고, 강사선임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전에 해오던 강사분들이 쭉 계속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다.

⇒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다는 어투였다.

여성학 교양개설위원가 있는 줄도 몰랐고, 첫 번째 방문후에 좀 알아본 후에야 그런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 여성학 수업 교양 개설위원회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안된다. 위원회라는 것은 위원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은 맞지 않다. 아무나 들어와서 하고 싶은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위원회냐?

⇒ 라며 처음에는 강하게 부정했으나, 지속적으로 총여가 이야기해야한다고 설득(?)한 이후, '위원회 내에서 총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의견이 합의가 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는...'라며 약간의 여지를 보였다. 계속적으로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생각됨.

☆ 강사선임관련하여 총여학생회와 코디모임의 대표성 문제

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학생들의 의견인 '수업평가서'가 수업평가에 결정적 지표이고, 총여학생회와 모니터링팀의 의견은 몇몇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이들의 의견이다. 하기에 교양수업인 여성학 수업은 대중들의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

여성학 수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전략적 방안

2001년 2학기 혹은 2002년 여성학 수업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방안이나 지금의 상황에 대한 간단한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성학 수업의 내용에 대한 문제나 이 수업들을 듣고 있는 학우들의 의견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먼저 우리가 하기로 한 일들을 정리해봅시다.

- . 연세여성연구소장과의 면담-공문 보내기
- . 사회학과장과의 면담(이미 강사가 결정된 거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뒷북을 치는 것일 수도 있겠군. 그러나 다음 학기를 생각한다면 만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사건!)
- . 여학생처 다시 짚어보기-연세여성연구소의 수업게시판 지원, 위원회 참여 요구

* 앞으로 할 일들

1. 위원회 참여를 위한 자료 정리와 위원회 참여 요구
2. 설문조사나 1학기 수업 모니터링 평가 자리 갖기
3. 면담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여성학 수업의 안정적 지원 요구

지금 학내 여성학수업개설은

지금 학내 여성학 교양 수업은 수업과에서 배정받은 5개 중 3개는 여학생처가, 나머지는 사회학과와 교육학과가 각각 맡고 있다. 여성학 수업강사선임위원회가 있지만 이 안에서 여성학 수업과 관련된 논의는 깊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회학과와 교육학과에서 개설하는 여성학 수업의 권한이 그 과에 완전히 위임되어 있는 상황이라 소통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형식적인 자리로 위원회가 있는 것 같다.

이 여강위에서는 전반적인 동의만 보이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위원회의 위상이 낮은 수위이긴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이고 다른 여성학 수업과 관련된 발언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잘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이 위원회는 여학생처장과 연세여성연구소장, 사회학과 김현미 교수, 교육학과 교수(?)가 들어온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선 여학생처장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물밑작업을 통해 만나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여성학 수업개설에 대한 총여의 목표는

위에서 말한 것은 위원회참여에 대한 대응방안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미 다음 학기 사회학과에서 개설되는 여성학 수업(남녀평등과 인간화)은 강사가 정해졌다고 한다. 여학생처에서도 강사를 바꿀 생각은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내년 학기를 기약할 수 밖에 없는데 ...

지금 여성학 수업문제가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전반적 상황을 파악하고 [여성학수업개설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시립대처럼 총여의 의견이 바로 수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 수업코디모임이나 다른 조사를 통한 여성학 수업의 평가가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해나가야 할까

여성학수업강사선임위원회 참여,제안

여성학 수업의 실질적 평가작업제안, 참여 (코디모임에 제안)

학우들이나 여성학 수업관련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기반과 규정 마련 요구

이번 학기는 방학때 열리는 여강위에 참여하여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여성학 수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수업평가자료로 어떤 것을 바꿀 수 있으며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형식적인 질문이라는 점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나 위원회에 총여나 여성학 수업 코디모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니면 여성학 수업에 대한 다른 모임이나 학우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이 위원회 내부에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여성학 교양 수업을 개설하는 이 위원회에서 따로 평가 작업을 돌리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이에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여 설문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는 여성학 수업평가의 자리를 매학기 말 여는 것을 제안해볼 수 있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 여성학 수업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맞는 설문작업을 통해 학우들의 구체적인 요구나 의견들을 모을 수 있을 것이며 여성학 수업개설에 있어 꼭 필요한 작업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성학 수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들을 함께 논해가는 자리로 여강위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내부에서 얼마나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지만.

어려운 지점들..

^^ 여성학 수업강사선임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다들 바쁜 사람들이라 그리고 몇번이나 만날 수 있을 지, 강사선임위원회가 아니라 더 폭넓은 수업과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도록하는 것 중요

^^ 수업코디모임에 설문조사 작업을 제안할 텐데 이에 대한 코디모임의 동의가 필요할 듯.

^^ 위에서 말한 의견들이 받아들여진다고 했을 때 수업코디모임의 존속과 1년이라는 유효기간을 지닌 총여의 한계